

민주 “이동관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30일~내달 1일 본회의서 표결” “방송장악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철회서를 냈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에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해선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썬스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발 사유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런 방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왼쪽)·허숙정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것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간담회에 동석한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법도 어긋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썬스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

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때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해당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직무수행 16개월 연속 1위

10월 긍정평가 69.0%로 급등 김동연 지사와 격차 벌려 독주 전국체전 성공개최 등 돋보여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격차를 더 벌이며 독주체제에 들어갔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주력, 진정된 지방시대를 위한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민선 7기 30개월간 1위를 한 데 이어 민선 8기 들어 16개월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69.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70%에 바짝 다가섰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사의 도정에 만족하는 압도적인 지지세다.

긍정 평가 2위는 김동연 경기지사 (61.8%), 3위는 이철우 경북지사 (57.0%), 4위는 김관영 전북지사 (54.9%), 5위는 김태흠 충남지사(51.9%)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월 김영록 전남지사를 0.4%p 차이로 다그쳤지만, 상승세가 주춤했다. 전남의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59.9%로 지난 달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김영록 지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때부터 지난 10월까지 16개월 연속 17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선두였다. 민선 7기 때도 지방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한 43개월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0차례 1위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모두 46회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어나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입의전화결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3년 9월22일~25일, 10월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사·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조실, 청년정책 여론 수렴...결혼·취업 등 '4대 관심' 논의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여론 수렴하고자 진행한 행사인 ‘미래를 여는 청년참여의 장: 청년정책공작소’를 마무리했다.

국조실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4가지 대주제를 선정해 ▲연애·결혼·출산(서울 개최) ▲일자리(대전) ▲자산 형성(광주) ▲마을 건강(부산) 순으로 현장에서 각 청년 1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에는 서울 한 호텔에서 그동안 제안된 의

견을 정책 제안서 형태로 정리했다.

우선 연애·결혼·출산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부모 급여·아동수당, 자녀 세액공제 등의 소주제를 놓고 논의했으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등의 안건이 의제로 올랐다. 이와 함께 청년 목돈마련과 경제금융교육, 마을 건강에서는 청년 마을 건강 지원사업, 문화 여가 활동 지원 확대, 고밀 은둔 청년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제안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조수진, 담양호 용수공급시설 예산 증액 요청

가뭄 극복을 위해 전남·전북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2일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위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담양호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 1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뭄이 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담양호에서 영산강으로 공급하는 용수의 퇴수를 집중, 순창군 사천의 상류부로 송수를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다.

조 의원은 “2010년 극심한 가뭄에 2m 높이의 물막이 벽이 설치됐었는데 올해 상반기 이상기후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막아둔 물길을 열기로 했



다”며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눈감고 볼 수 없었던 순창 주민들의 통 큰 결단, 그리고 지역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가뭄지역 간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해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바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 간 상생협력의 모델로 공직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초등·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호남 예산을 챙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쌍방향 북러 군사협력 막아라...한미, 국제사회 설득 외교전

유럽에 압박 동참 설득

미·중 정상회담 中 태도 주목

한미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으는 전방위 외교 노력에 나섰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대러 압박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파트너들과 취할 수 있는 추가 행동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목소리를 내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해 유럽 안보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도 북러 양측에 대한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 국가들도 이런 ‘북한 변수’에 자중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러 군사협력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EEAS는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군사 장비 및 탄약 거래도 삼가고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질서 유지 의무를 진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대안론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러 관계의 급성장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장비 직접 제공 등을 우려 속에 지켜왔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에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계속된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50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